

기술자와 결혼하지 말지어다?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이번엔 여러분의 컴퓨터를 위해 참으로 재미없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은 1930년대에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의 학생지에 ‘공학기술자를 위한 시편 23장 (The 23rd Psalm for Engineers)’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것을 번역 전재한 1979년 당시 한국과학원 학생회지 碩林 (1979년 2호)에서 따온 시이다.

진실로 내 너에게 이르노니
기술자와 결혼하지 말지어다.
기술자는 기이한 존재이어늘 악취로 가득 차 있느니라.
그러하노라. 기술자는 오로지 공식이라 부르는 비유만으로 이야기하고
계산자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휘두르는도다.
기술자는 오직 편람이라 부르는 성서만을 지니고 있느니라.
기술자는 변형과 응력만으로 생각하고
끊임없는 열역학을 사유하는도다.
기술자는 항상 생각한 국면만을 생각하고 미소를 띄울지 모르는도다.
기술자는 차안의 용수철과 자리를 같이할 뿐
소녀와 같이 자리를 나눌 줄 모르느니라.
항상 기술자는
책을 들고 다니며 연인을 수증기 도표로 대접하려 하는도다.
기술자는 마력(馬力)을 모르고는 폭포를 모르고
불을 켜야 한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낙조(落照)를 이해하지 못하며
연인의 살아있는 체중이외는 그녀를 알지 못하느니라.
진실로, 기술자와 만날 때 그 연인은 초콜렛을 기대하건만
그는 그의 가방에서 오직 철판석의 견본만을 발견할지어다.
그러하노라. 기술자는 연인의 손을 잡으매
거기서 발생하는 마찰력만을 측정할 뿐이며
기술자는 연인과 입맞춤을 하면서
그녀 입술의 점성만을 시험할 뿐이니라.
기술자의 눈이 꿈꾸듯 반짝이듯 보여도
이는 사랑도 동경(憧憬)도 아니며
다만 공식을 기억해 내려는 헛된 기도(企圖)일 뿐이니라.
기술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단 한가지 우등(優等)이어라.
그의 연인이 사랑에 대해 쓰고 성호를 굿더라도
기술자는 이를 입맞춤의 기호가 아닌
미지의 양에 대한 기호로만 받아들이노라.

소년시절 기술자는

소녀의 머릿가락을 잡아다니며 탄성을 시험하였노라.

성인이 되어 기술자는 또 다른 기구를 발견하여 연인의 심금의 진동을 헤아릴 뿐이더라.

기술자는 그의 과학적 탐구만을 영원히 구하노니 자신의 심장의 고통을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력으로 계산하고 자신의 정열을 공식으로 표현하려 애쓰는도다.

기술자는 자신의 결혼을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2개의 미지수를 가진 연립방정식으로 간주하는도다.

진실로 내 너에게 이르노니 기술자와 결혼하지 말지어다.

옛날에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계산자(slide rule)를 사용하던 시절에 지어졌던 시를 읽으며 옛날을 회상하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오르게 된다. 공학기술계의 위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 요즈음 젊은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읽히면 더욱 공학기술자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 사실상 공학기술자들이 일반적으로 책을 잘 읽지 않고 오직 공학적, 과학적 사고방식에만 젖어 있어 때로는 인간미가 결여된 것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위의 재미없는 시가 표현한 것처럼 공학기술자와 정말 결혼하지 말아야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이다. 공학기술자의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없는 숨씨 짜내어, 위의 시를 다음과 같이 모작해보았는데 독자 여러분의 평가가 두렵지만 애교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진실로 내 너에게 이르노니 기술자와 결혼할지어다.

기술자는 참으로 인간적인 존재이여늘

순수한 향기로 가득 차 있느니라.

그러하노라. 기술자는 오로지 공식이라 부르는 비유만으로 이야기하고

오직 편람이라 부르는 성서만을 지니고 있는 듯 비칠지라도

계산적이거나 이해 타산적이지 않고 오직 연인만을 사랑하는 진실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

기술자는 변형과 응력 그리고 끊임없는 열역학을 사유하면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말없이 노력하노라.

소녀와 같이 자리를 나누면서 소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소녀의 안전을 위해 차 안의 용수철의 강성을 점 검하는 따뜻함이 아름답지 않느냐.

기술자는 열의 따뜻함과 아름다운 빗줄을 연인에게 제공해준다.

낙조(落照)를 보면서 때문지 않은 시어(詩語)로 즉흥시를 읊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을 위해 그 낙조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키려 애쓰는도다.

그러하노라. 기술자는 연인의 손을 잡으면서 연인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높은 열효율의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할 생각을 할 뿐이며

연인과 입맞춤을 하면서 그 입술의 점성을 시험하며

연인에게 꼭맞는 립스틱을 생각하는 마음 씀이 곱디 곱지 않은가?

기술자의 눈은 그 영민함으로 꿈꾸듯 반짝이며

사랑에 대한 동경(憧憬)으로 연인에게 다가가노라.

그의 연인이 사랑에 대해 쓰고 성호를 긋는 동안

기술자는 그의 과학적 탐구를 통해 이웃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연인에게 보여 주리라.

진실로 내 너에게 이르노니 기술자와 결혼할지어다.

행복이 진정 너의 것이 되리라.